

부동산개발자금(PF) 대출 전문은행
동양지축은행
 0621228-0180

www.kwangju.co.kr
당신의 결혼을 응원합니다
 VIP No.1 결혼정보회사 - 마스코트
 062) 228-2222

전교부 "호남고속철 공주·정읍역 추가 신설" 시·도민 "정치적 결정" 반발

"선거전 착공시기부터 밝혀라"

광주·전남지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던 호남고속철도 공주역과 정읍역 추가 신설이 결국 현실화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교통부는 열린우리당이 5·31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공주역·정읍역 추가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전남 주민들은 호남고속철도 정차역 신설이 선거를 앞둔 충청·전북 표를 의식한 여당의 선심 공약에서 비롯된 데다, 호남고속철도 다수 수요자인 호남 지역민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다. 특히 국가 정책을 집행해야 할 건설교통부가 열린우리당의 공약을 실행하는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민들은 또 정부가 호남고속철도 착공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표

명을 하지 않으면서 정치역 문제로 논란만 야기하고 있다면서 '선거를 앞둔 선심 공약'은 그만두고 착공시기라도 지방선거 전에 명확히 밝혀라고 입을 모았다.

호남고속철도에 당초 계획에 없던 정차역이 2곳이나 추가될 경우 '고속철'이 아닌 '저속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두개의 정차역이 신설되면 운행시간이 15분~20분 정도 길어져 고속철 본래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물류 수단으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고속 운행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역 추가 건설에 따른 경제손실도 엄청나다. 지역 전문가들은 정치역이 두 개 신설될 경우 공사비가 6천억원 증가되고, 공사 기간이 연장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이건설 선임 연구원은 "정치역 추가 신설은 호남고속철 주 이용객인 광주·전남지역민들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여론 검증과 용역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호남고속철

을 선거용으로 이용할 의사가 없다면 집권 여당의 공약에 의지해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고속철 착공 시기를 선거 전에 밝히는 것이 우선 순위"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차량 구입비 7천326억원을 포함한 10조979억원의 들여 오송~익산~광주~목포의 4개 정차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230.9km의 고속철을 건설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공주역과 정읍역을 신설해 달라는 충남 및 전북 지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두 역의 신설을 공약하고 나섰다.

건설교통부 최근 정치역 신설을 검토한 결과, 오송~익산 사이에 공주역이 익산~광주 사이에 정읍역이 들어가도 약간 거리가 경부 고속철 및 일본·대만 등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약간 거리 문제는 없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재희기자 chae@kwangju.co.kr

5.1 예술 꿈나무들의 큰잔치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호남 예술제

문광부 장관상 시상 18일 접수마감

미술품·작문·노래·춤 공모 신설
 유망 청소년 예술인 발굴을 위해 호남예술제에 참가하는 청소년 예술인들에게 장관상을 시상한다.

신청기간: 4월 18일 (수) 오후 12시까지 접수
 접수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중앙선물추진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로1가길 23) 또는 호남문화재단 (광주광역시 서구 봉암동 101-3)

시상처: 호남문화재단 (광주광역시 서구 봉암동 101-3)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로1가길 23)

문의: 호남문화재단 기획팀 (062-228-2222)

환율 폭락... 1달러=957원 4일새 18.8원 떨어져 8년 5개월만에 최저

원·달러 환율이 8년반만에 950원 대로 떨어졌다.

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5.90원 떨어진 957.3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97년 10월 28일 이후 8년5개월만에 처음으로 960원을 밑돈 것으로 97년 10월 27일 939.90원 이후

최저수준이다. 4거래일간 하락폭은 18.80원에 달했다. <관련기사 11면>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2.10원 하락한 961.1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당국 개입으로 963.60원까지 반등했다. 그러나 외국인 주식 매수분과 기업내외 속주로 은행권 손절매도가 촉발되자 급락하며 956.20원까지 떨어졌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외국인 주식 매수분과 수출기업 선물환 매도 등 매물이 환율 급락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주식매수 규모는 4거래일간 1조2천억원(약 12억3천만달러)에 달했고 지난해 31일 20억달러에 육박했던 수출업체 선물환 매도도 지속됐다. 역외세력은 공격적으로 매도

에 나서며 이틀째 역대 은행들의 손절매도를 촉발시켰다.

당국도 이틀째 개입에 나섰다 쏟아지는 매물을 흡수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원·달러 환율이 원화과 절상후 처음으로 8.01위안 밀로 떨어지며 엔·달러 117엔선 붕괴를 유도한 점도 환율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남부대학교 (062)228-0114 ~ 0800-1

전남과학대학 (062)228-0114 ~ 0800-1

한국어선 소말리아해역서 무장괴한에 피랍

한국선적 참치잡이 원양어선이 지난 4일 아프리카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무장 괴한들에 의해 납치됐다.

5일 외교통상부와 동원수선에 따르면 4일 오후 3시40분께 (한국시간) 동원수선 소속 제628동원호(361t)가

소말리아 부근 해역을 지나가던 중 2대의 보트에 나눠 탄 무장 괴한들에 의해 공격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8명, 베트남인 5명, 중국인 3명 그리고 인도네시아인 9명 등 25명의 선원이 승선해 있었

으며 괴신박에는 완전무장한 8명이 승선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들은 현재까지 전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납치 사실은 나포 당시 인근에 있던 같은 회사 소속의 제630동원호가 인근 해역에서 작전 중이던 네덜란드 군함에 구조요청을 하면서 알려졌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호남최고의 명당! 가족납골공원 특별분양!

60% 분양완료

호남문화재단 (062) 527-1100